

조선시대 산대놀이 복식의 변모과정과 의복상징에 관한 연구

이일지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본 논문은 산대놀이가 제의적인 성격과는 달리 숙종 이후부터 흥행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놀이문화로 변모하게 된 과정을 검토하고 광범위한 조선시대 나례와는 달리 17세기 이후 재창출된 문화로서 조선 전·후기의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쇠퇴기인 일제 강점기까지 민간 예능인들이 장시를 중심으로 양반에 대한 풍자 고발 문화를 복식에서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그 구성상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전통극을 현대적 의미로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복식에서 공연복식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산대라는 명칭은 나례의 무대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17세기 중엽이후에는 현전하는 탈춤 명칭인 산대놀이를 말하며 즉 본산대패를 가리킨다. 조선 전기 나례에서 탈놀이가 분화되면서 인조 때 나례도감이 폐지된 후 민간 예능인은 전국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연행한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장시를 중심으로 공연행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산대놀이가 형성되었다. 상업적인 도시탈춤은 1899년을 기점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적 말살 정책과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영화산업과 같은 공연문화의 새로운 이변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산대놀이의 의상에는 흔히 조선시대의 민화나 불교의 산신탱화, 무당의 신상도 등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등에 그리거나 수를 놓아 장식한다. 동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각처에서도 상상 속의 성수(聖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민족신앙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양주별산대 놀이, 송파산대놀이, 봉산탈춤 등에서 용호(龍虎)의 등장은 풍농굿에서 유래하여 싸움굿에서 극적인 재미로 옮겨 가게 되면서 공연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진다.

용·호의 싸움은 농경의례의 상징적 싸움으로 성장을 뜻하는 여름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겨울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산대놀이에서는 가면과 의상에 나타나는 색의 대결구도로 나타난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대결은 복식에서 청·홍의 대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검은색이 푸른색으로 그 의미가 변모한 것으로 추측된다.

산대도감 계통극은 넓은 지역분포를 나타낸다. 복식형태는 비슷하나 장삼과 한삼으로 지역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팔목중춤에서 산대놀이는 모두 장삼을 입고 춤을 추나 봉산탈춤에서 팔목중은 잠방위에 장삼과 더그레를 입는다. 그런데 장삼을 입지 않고 더그레를 입는 경우에는 한삼을 달고 춤을 춘다. 따라서 해서와 경기탈춤의 차이는 장삼과 한삼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혼례복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산대놀이의 변모과정은 무대복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무대복식의 상징적 가치는 사회, 교육, 예의, 유행, 등에 따라 그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